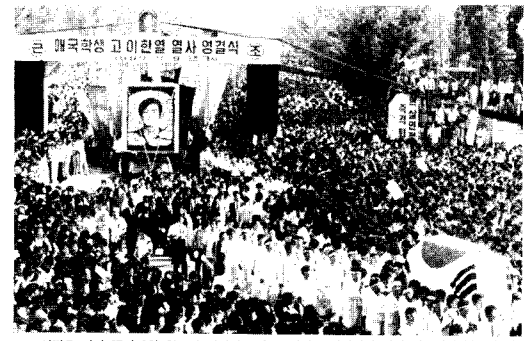
현시기 개혁 추동한 보이지 않는 손

6월항쟁 6주년 기념특집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우리의 과제



◇사진은 지난 87년 6월 최루탄 난사에 목숨을 잃어 폭력정권에 대한 전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인 이한열 열사의 영결식

Ⅰ.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6월 민주화 투쟁

80년대 이후 한국현대정치사에서 주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80년의 '광주항쟁'과 87년의 '6월 민주화 투쟁'일 것이다. 그것은 두 사건이 당시의 정치·사회구조에 준 충격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정치적 영향력이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과정에 강력하게 지속되어 왔다는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사실 현 김영삼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보이지 않는 강제력 중 하나는 두 사건이 공히 합축하고 있는 민주화에 대한 다수 국민의 여망이란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6월 민주화투쟁이 한국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기적 의미와 더불어 민주화로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투쟁의 전개과정에서 보여졌듯이, 전국민적 환호와 지지, 참여속에 '반독재민주화'라는 국민적 집단의지를 경험적으로 형성하였다는 점, 따라서 이후 어떤 정치권력도 그러한 경험이 주는 압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을 뿐더러 반독재민주화의 방향을 노골적으로 역전시키려면 87년 6월과 같은 국민적 도전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정치권력이 안게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Ⅱ.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6월 민주화 투쟁

80년대를 통해 성장한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과 야당이 연대하여 조직한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약칭, 국본. 87년 5월27일 결성)'에 의해 주도된 6월 민주화 투쟁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참여계층과 참여지역의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가장 중심적 세력이었던 학생이외에도, '명동의 넥타이부대'라는 별칭으로 알 수 있듯이 화이트칼라의 참여가 초기에 가장 돋보이는 특징이었다(10—13일까지 서울지역에서구속된 일반시민 21명중 4명이 회사원). 도시빈민계층(명동성당농성 비학생참가자 중 약40%정도)과 도시지역의 서비스업 종업원(6월 투쟁 구속자 중 1차 석방된 비학생 35명 중 12명)은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전투적이었으며 참여도 후기까지 지속되었고, 투쟁이 확대되면서 공장지역의 가두시위에 노동자의 참여가 두드러진 양상을 이루었다(96/26 비학생구속자,19명중 9명이 노동자). 물질적·정신적 격려가 투쟁 참여자에게 잇달았으며 계속된 시위는 차량의 경적과 연도시민들의 박수속에 국민적 환호를 몰고 갔다. 거대한 집단의지의 형성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이시기 민주화투쟁은 참여와 지지가 동반된 전국적, 전계층적인 국민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규정은 한치의 과장도 섞인 것이 아니다.

물론 6월투쟁이 순탄한 진전과 발전의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참여가 확대시켰는데, 6월 18일의 국민대회는 학생이외에 시민의 참여가 대폭 늘었고 국본의 평화적 시위 천명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무장해제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 시점에서 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4·13호헌조치'의 연장선에서 대응을 한다면 군대동원은 더이상 시기를 놓칠 수 없는 필연이었다. 이 때 이들의 이러한 결정을 억제한 것은 여설적이게도 80년 광주학살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정국을 안정회시키려면 80년 광주의 10배 이상의 유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명백했기 때문이었다. 비운동적 연장선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6월민주화투쟁이 일부 권위주의 지지세력을 제외한 국민적 부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

국가형성이후 한국정치의 제양상의 근저를 이루어왔던 정치균열구조는 권위주의(독재)대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한 균열구조의 80년적 양상이 소위 '신군부'라는 우리사회 내 가장 권위주의적 물리력에 의한 '쾌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다면 87년의 양상은 그간 끊임없이 성장해온 민주주의의 운동적 성과를 반영한다. 87년 6월의 수백만명에 달하는 연이은 국민적 투쟁은 이런 의미에서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인 것은 아니었다. 역압적인 정치권력에도 불구하고 80년 광주를 딛고 일어선 민주화운동은 85년부터 기본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에 대하여 공세적인 위치에 있었다. 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의 제1야당으로의 부상은 학생운동을 중심으로한 민주화운동의 노력을 관련시키지 않고는 이해되기 어려운 결과였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이러한 공세가 87년 6월까지 유예된 것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 이 시기 민주화운동의 구체적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 전통의 과정을 취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의 모색과정은 CNP논쟁과 헌법(개헌)논쟁, 그리고 제헌의회와 직선제개헌 논쟁으로 알려진바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란 피를 먹고 자란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동반하였다. '김근태씨 고문사건', '권인숙양 성고문사건', '박종철군 고문살해사건',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군 사망사건' 등은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몇사건에 불과했지만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민주화투쟁의 국민적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87년 6월은 이런 의미에서 앞서도 지적했듯이 불현듯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이 국민적으로 확연히 인식되게 된 조건에서, 성장·견결된 민주화운동세력이 격극적인 투쟁에 주저했던 야당을 압박하여 적극적인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선도한데서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Ⅲ. 6월 민주화투쟁의 현재적 의미

이후의 역사과정이 보여주듯이 6월투쟁은 곧바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넘어서 민주적 정치질서를 확립시키지는 못했다. 대통령후보문제로 민주화운동은 분열되었고 야당은 갈라졌으며 6월 민주화투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붕괴대신에 그 체제를 이끌었던 또 다른 인물에 의해 다시금 권위주의체제는 안정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논자들은 6월투쟁이 직선제개헌이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87년 6월은 권위주의체제 자체가 아닌 대통령 간선제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방식의 일부를 붕괴시킨 것으로, 그것은 운동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그 이후의 역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를 통해서만이 아니다. 6월 민주화투쟁을 통해 이루었던 극단적 집단의지는 표면에서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주는 압박으로부터 아무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었다. 비록 6월 민주화투쟁의 주체가 이후 정치상황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6월 민주화투쟁의 경험은 점진세력으로 하여금 수동적 개혁을 계속할 수 밖에 없도록 강제해왔다. 과거의 집단적 경험은 또 다시 조건이 충족된다면 손쉬운 대안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영삼 정권이 사정개혁을 통해 구사회의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면서 스스로를 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적자로 자처하는 것도 그러한 압박을 수용하는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6월 민주화,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대상과의 타협을 통해, 그리고 6월 민주화투쟁의 주체가 배제된 구조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권력안정화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김영삼정권의 개혁을— A.Gramsci적 의미에서—전형적인 수동혁명:Passive Revolution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따라서 6월 민주화투쟁의 계승은 6월 민주화투쟁을 집권안정화를 위한 수단적 의미로 퇴색시키려는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집단의지가 민주화를 위한 개혁의 바탕이자 주체가 되는 역설없는 능동적 개혁의 전망을 현실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박 상 훈
〈고대 박사과정·정치학〉

80년 광주희생 거름 삼은 전 계층적 반독재민주화투쟁
집권안정화의 수단아닌 개혁전망 밝히는 계승 이루어져야

현장취재

"취임 1백일째날의 강제철거"

본교 50여명을 비롯한 2백여명의 학생과 청량1동 재개발 지역주민들은 지난 3일 "재벌에겐 금융특혜 철거민에겐 강제철거, 김영삼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청량리로 향했다.

청량1동 재개발지역의 강제철거가 진정과 경찰 70여명이 출동된 가운데 이루어졌고 아침에 본교 총학생회로 대피했던 주민과 본교 학생들은 뒤이어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청량리로 다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청량1동 세입자대책위원회(세대위)의 간부들을 연행하려는 청량리경찰서의 시도가 있은 후 세대위의 사무실 벽이 무너지고 모든 집기가 나뒹구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문민정부에 대한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가수용단지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는 강제철거로 자행된 공권력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문민정부가 부르짖는 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민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러한 분노는 철거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우리의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자고 저는 국민여러분께 제안합니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취임 1백일 기념 연설에서 위로를 구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것이다.

그 분노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도 잃어버린 이의 것이기 때문이다.

〈정미경 記者〉

한주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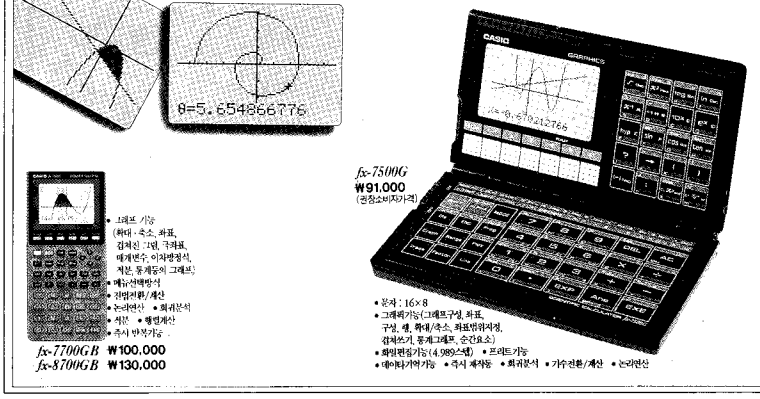
▲31일—카지노 도박자금 불법대출. 외환규정 무시, 외국인에 수십억 '뒷돈'. 매출액 속여 탈세·외화 유출도. 경찰 불법협의 잠고도 수사확대 안해.
—북한 NPT복귀 표명 않을 땐 한—미, 대북제재 유엔결의 추진. 북한, 미국에 성실대화 촉구.
—미국 군사전략 수정검토. 군비축소 거냥 2개 전쟁 동시수행 포기.
▲6월1일—박태준씨 56억 수뢰 혐의. 국세청서 고발 2백47억 은닉, 증여세 63억 추징. 포철 7백30억 밥세, 검찰 박씨 귀국 종용.
—카지노 철저 수사 촉구. 민주당 사정 정치적 악용 없애야. 카지노 환전상 전면 조사. 한국은행 외화유출·불법대출 등 추적.
—무기도입, 대통령 결재 누락 적발. 율곡사업 감사, 커미션 수수등 비리혐의 확보.
—특사교환 거듭제의. 북한 "실무접촉 4일 갖자"
▲2일—국세청 카지노 탈세 방관. 세금 중점관리, 업종 불구 조사 외면. 받세 앗단 지적에도 실사계획 안세워.
—정치보복 세무조사 비난. 민주당, "김대통령 반대한 박태준씨 겨냥". 포철자금 민자당 유입 밝혀야.
—장성 62명 정원초과 인사. 영관급도 1천여명, 감사원에 산낭비 지적.
—북한·미국 고위급 회담.
▲3일—'개혁'위한 사정 성과 논란 남겨. 김영삼정부 출범 1백일 궤도 점검. 시간지나면 '새깔 변화'가능성, 보수적 안정화로 되돌아설수도.
—민자, '김종인 의원 처리' 속앓이. '제명'방침 굳혔으나 후유증 고민.
—과테말라 군부, 대통령 축출. 국방 권한대행 후임 에르브레르 헌법재판소장 유력.
—EC, 단민 규제 대폭 강화키로.
▲4일—15대 총선 개혁인물 공천. 입기 중 개헌 없어, 재벌 해체 무산. 5·16은 쿠데타로 역사 후퇴시켜.
—북한·미국 2차회담. 첫회담서 핵조약복귀 언질 없은듯.
—군장성 후속인사, 합참2차장 강덕동 중장. 공군 차장 최동환, 해군 임태섭 소장.
—김종인의원 민자탈당.
—과테말라 부통령에 체포영장. 대통령직 승계권 주장 군부 재제서 묵살.
▲5일—카지노 탈법 '비호' 의혹. 탈세·외화 유출 혐의 계속 무실. 검찰·국세청 조사 착수 서로 미뤄.
—감사원, 방산업체 실지조사. 대우·대한항공·현대등에 잔수항·헬기·전차제조 집중점검.
—통화증가 두달째 억제선 넘어. 5월중 총통화 18.7%로 물가자극 우려.
—영남주민 오염물 마신걸로 드러나. 4월 낙동강 수질 4등급수로 공업용수보다 못함.
—정주영·정몽준씨 출국금지, 김효영의원등 4명도 대선법위반 고소관련 곧 소환.

다양한 그래프기능에서 키 조작의 오류까지 잡아준다.

CASIO

신제품

fx-P401 ₩32.000
fx-3600Pb ₩28.000
fx-570aa ₩20.000
fx-4500P ₩48.000
fx-5500L ₩60.000
FX-603P ₩120.000



fx-7500G ₩91.000 (권장소비자가격)
fx-7700GB ₩100.000
fx-8700GB ₩130.000

PB-2000C ₩270.000

한국대리점 : 대경전자통상(주) TEL. 745-6123(代) FAX. 766-8505 제조원 : CASIO COMPUTER CO., LTD. Tokyo, Japan

(전문취급점)
■서울■ 세운성물사272-2437 ■전일전자278-2775 ■일파문구센타752-0096 ■옥산O·A 703-3914 ■유니온사우기756-2714 ■경문전자701-3339 ■삼성동전자센터569-6257 ■형제사752-8507 ■일진상사753-6031 ■인천■ 포무사863-6688 ■만물문구센터662-3355 ■부산■ 대화상회246-4478 ■동해사806-1430 ■동양사246-6263 ■대구■ 가능상사252-8871 ■국제상사254-8151 ■마산상사472-8533 ■광주■ 송원사223-3650 ■무리문구528-7121 ■삼성전자204-8883 ■전주■ 전주문구센터77-0079 ■포항■ 국방사44-3385 ■울산■ 구일문구73-9595 ■대전■ 창신문구255-7681 ■천안■ 천안문구551-1171 ■김해■ 국제상사645-0400 ■AAA사무기648-2688 ■수원■ 홍문사5-7282 ■원주■ 형제문구42-5050 ■제주■ 금산상사52-2495 ■창원■ 영진사55-5785